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노사관계 악화의 원흉이 되고 싶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를 속 시원히 수용하라!!

사측이 교섭 중 노사관계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고 있다. 안건으로 상정도 안된 엉뚱한 내용을 들고나와 실무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사측은 임금실무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라면서 ▲연봉제 개선 ▲성과 우수자 보상강화 ▲직무가치와 연동한 임금체계 도입 ▲매출 감소시 호봉승급 유예 등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시한 것이다.



사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

결국 11일 본교섭에서 취소하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사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십수년된 ‘골동품’ 노사마인드를 청산하는 길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속 시원하게 수용하는 것뿐이다.

이제는 계열사 임원까지도 허위사실 유포

KT네트웍스 임원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KT네트웍스의 교섭에서 한 임원이 “KT의 임단협이 끝났다”며 네트웍스의 교섭이 KT보다 늦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계열사 임원이 공식적인 교섭테이블에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것이다. 이는 분명 허위사실 유포일 뿐만 아니라 KT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사측 대표위원인 남중수 사장도 “노측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길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의 단호한 행동만이 뒤따를 뿐이다.

사측의 어처구니 없는 막말

이 정도면 교섭이 아니라 도발이다

사측의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실무교섭 때마다 근거도 없는 억측 주장에 불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사측. 이정도면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이라고 봐도 되겠죠?

[10월 5일 임금실무소위원회]

“사무직 근로자는 무정량 근로가 원칙이다”

노동조합이 초과근무수당 확대를 요구하자 사측이 지식근로자는 무정량 근로가 원칙이라면서 밤늦게 일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



[10월 9일 단협실무소위원회]

“5%라는 수치에 집착하지 말자”

노동조합의 ‘복지기금 5% 출연 원칙조항’에서 ‘원칙’을 삭제하고 ‘5%출연’으로 못박자고 제시하자 사측의 5% 삭제안을 주장하며.

[10월 5일 임금실무소위원회]

“현장이나 본사에도 9시 출근해 정시 퇴근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조합이 초과근무수당 확대를 요구하자 사측이 정시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며.

[10월 9일 단협실무소위원회]

“희망에 의한 주휴일”

노동조합이 사측의 대체휴일 도입을 비판하면서 현업에 만연한 희망휴일 문제까지 짚고 넘어가자 사측의 희망휴일을 풀어 설명한 말.